40주년 앞둔 5·18 단체들 새판 짠다

5월 3단체 12~2월 새 회장 선출…진상조사위 출범 등 역할 주목
수장자리 놓고 갈등 가능성…광주시 담당부서 공무원도 인사 이동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단체들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새판 짜기에 들어간다. 광주시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등도 내년 40주년을 맞아 조직을 개편하고, 일부 인원을 새롭게 배치한다.

5·18 4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은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출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5월 단체와 관계기관을 이끌 새로운 리더 선출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초까지 5월 3단체 회장들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이 새롭게 바뀌고, 광주시 5·18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일부 인사 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 사이 5월 3단체 회장이 새롭게 선출되며, 이번 주 내에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5월 3단체 회장이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 5·18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내년 1월 인사 철을 맞아 일부 인원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40주년의 중요성을 감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장 먼저 다음달 7일 '5·18구속부상자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내홍을 겪다 지난 10월 양희승 전 회장이 퇴임을 한지 두달 만에 이뤄지는 선거다.

내년 2월 초엔 '5·18유족회장'이 직선제로 선출되며, 같은 달 '5·18부상자회장' 선거도 총회를 통해 대의원 선거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5월 단체 회장자리를 놓고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회장 선출 일정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일부 단체의 경우 유력 후보자들 사이에 흑색선전과 비방이 오가는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5월 단체 관계자는 "벌써 (선거가)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회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5월 단체에겐 매우 중요한 해인 4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회장 선거로 화합은커녕 갈등만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진 회원들인데 흑색선전이나 비방전 등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5월 단체 회장 선거에 앞서 새로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나의갑 전 기록관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22일 정용화씨를 새로운 기록관장으로 선임했다. 정 신임 관장은 신원조사 등 나머지 절차를 거친 뒤,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달 중 임용 예정이다.

내년은 40주년과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선출과 임명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5월 단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선거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차단하고, 흑색선전이나 비방전에 나선 후보에 대해선 표심으로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월 단체 신임 회장들은 성공적인 40주년 일정과 철저한 진상조사라는 큰 목적을 두고 5월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면서 "회원들 간 갈등이나 반목 없이 진정한 일꾼을 뽑은 회장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의 쌀 나눠요" 25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구호전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북구청 희망복지과 직원들이 지역의 돌봄이웃과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할 백미를 차량에 싣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설계 초안 내일 공개
빠르면 내년 11월 착공

5·18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 설계 초안이 공개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옛 도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도청 복원공사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린다. 이달 초부터 복원 설계 용역을 맡은 아이에스피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 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을 공개한다.

당시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이 완료 된 설계에 이후 바뀐 건축법·장애인 복지법 등의 규정이 반영된 설계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추진단과 건축사 사무소는 5·18 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자료수집 등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고증을 거쳐 2020년 9월까지 도청 복원 최종 설계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복원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옛 전남도청 1층 서무과와 2·3층 도지사실 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금품수수 의혹' 최영호 전 남구청장 기소 의견 송치

광주경찰이 지역주택조합 건설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등에 관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차례 최 전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인허가에 관여한 공직자 등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구청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 전 구청장은 "금품을 받았다니 너무 억울하다. 작년 7월부터 수사를 했던 내용인데 (경찰이)결국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송치 결정을 한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인허가 특혜의혹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광주시 조건부 승인 내용보다 도로폭을 확장하고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등 조건을 강화했는 데 무슨 특혜냐"고 반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속도로서 고의 추돌 '위험한 보복 운전'
뺑소니에 주거 침입까지…함평경찰, 30대 검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30대가 뺑소니에 이어 주거침입까지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함평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자영업자 A(35)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8분께 서해안고속도로 함평휴게소 인근 서울 방향 갓길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박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대 운전자와 다툼 끝에 갓길로 차를 밀어붙여 세우게 한 뒤 고의로 후진해 추돌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서울 방향으로 도주했고, 2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천-공주 고속도로 구간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또 다시 도망쳤다.

A씨는 경찰 추격을 따돌리며 서울까지 달아나 다른 사람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함평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붙잡혀 있는 A씨를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양식장 관리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군산서…해경 수색 중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내·외국인 선원 5명을 태운 소형 김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돼 해경이 수색중이다

이 사고로 러시아 국적 선원 2명은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나머지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5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 해상으로 작업을 나갔던 양식장 관리선이 입항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전날 밤 11시 10분께 접수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8시께 양식장에서 1.4㎞ 떨어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서쪽 7.4㎞ 해상에서 뒤집힌 채 떠 있는 양식장 관리선을 발견했다.

해경은 발견된 배 위에서 러시아 국적 선원 2명을 구조하고 배 옆에 묶여 있던 선원 박모(70)씨의 시신을 경비함정으로 옮겼다. 구조된 러시아 국적 선원들은 "물에 빠져 사망한 선원의 시신이 파도에 떠내려갈 것 같아서 배에 묶어뒀다"고 진술했다.

뒤집힌 양식장 관리선은 0.5t급(60마력)의 소형 배로, 탑승자는 숨진 박씨 이외에 선장 신모(49)씨와 송모(52)씨, 러시아 국적 선원 A(38)·B(26)씨 등으로 파악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술집서 행패 부리고 합의 강요한 '동네 주폭' 구속

광주광산경찰은 25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50여 차례 영업방해와 협박을 일삼은 A(42)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B(여·42)씨의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전날인 20일 B씨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벌어지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일행과 B씨를 위협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다음날 업주인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나이트클럽서 만난 남성과 팔짱 낀 아내 본 남편 '홧김 주먹질'

쌍나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팔짱을 끼고 길을 걷는 아내를 목격한 40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입건된 A(44)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자신의 아내와 팔짱을 끼고 커피숍에서 나오는 B(38)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B씨와 A씨의 아내는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는데, B씨는 "커피숍 안에서 A씨의 아내가 발목을 다쳐 잠시 부축해준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건물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건물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룡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주 택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아 파 트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아 파 트 광주 남구 봉선동 더쉴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아 파 트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예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아 파 트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3억7천1백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